

우리 조직 AI 전환, 안전하게 시작하는 법

AI 전환(AI)은 비싼 도구를 들이는 일이 아니라, **우리 자료를 AI가 읽을 수 있게 쌓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**입니다. «잘 모르니 일단 금지»는 자료를 지키려는 마음이지만, 그사이 실무자는 같은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고 퇴사와 함께 자료가 사라집니다. 금지 대신 **규칙**을 정하면 지키는 쪽도 쓰는 쪽도 편해집니다.

1 지금 바뀌고 있는 것

정부도 «AI가 읽을 수 있게»로

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4일부터 **«AI 친화적 보고서 작성»을 전면 실시**하고, 보도자료를 사람과 AI가 함께 읽기 쉬운 **마크다운**으로도 냅니다. 공문서를 가장 오래 지켜 온 곳이 먼저 바꾸고 있습니다.

자료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

조직 공유 드라이브의 파일은 **개인이 아니라 팀(조직)의 소유**라, 구성원이 떠나도 남습니다(Google 공식 안내). 비영리단체는 Google 비영리 프로그램 인증 후 Workspace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.

2 안전장치 — 정보 등급 세 칸

등급	예	규칙
공개	홈페이지·소식지·공고·이미 배포한 자료	AI에 자유롭게 사용
내부	회의록·기획안·업무 매뉴얼·보고서 초안	업무용 계정 + 학습에 쓰지 않는 설정, 결과는 사람이 확인
민감	이름·연락처·주민번호·계좌·건강·후원 내역	넣지 않거나 가린 뒤 사용, 또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내 컴퓨터 안 도구로만

고객·회원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·AI 서비스에 넣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·국외 이전(제26조·제28조의8)에 해당할 수 있어, 민감 등급은 따로 다룹니다.

3 시작하는 순서

1

정보 등급표 한 장

위 세 칸을 우리 조직
말로

2

조직 계정 · 공유 드라이브

자료가 모일 자리부터

3

새 자료부터 새 방식

지난 자료보다 다음 주
회의록부터

4

공개 자료로 작은 시범

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
결정

5

조직 지침 문서 한 장

누가 써도 같은 방식으로

4 결정하실 것 세 가지

어떤 계정으로

업무용 AI·드라이브 계정을 조직
이름으로 둘 것인가
개인 계정 사용은 퇴사 시 자료가 함께
나갑니다

어디까지 허용

공개·내부 등급까지 허용하고 민감은
막을 것인가
시범은 공개 자료만으로 시작할 수
있습니다

누가 확인

AI가 만든 결과를 내보내기 전 누가
검수할 것인가
«말린다»는 «확인한다»와 한 묶음입니다

5 함께 배우는 3회 과정 (회당 120분)

1회 · 바뀐다

채팅 AI와 에이전트, 깨야 할 관습 네 묶음, 우리
조직 진단

2회 · 쌓는다

조직 계정·공유 드라이브, 첨부 말고 본문,
문서를 글자로

3회 · 말린다

정보 등급표·조직 지침 문서, 첫 위임과 검수

결정하시는 분이 **1회부터 함께 들으시는 것**을 가장 권합니다. 실무자와 같은 말을 쓰게 되는 것이 이 과정의 첫 성과입니다.